

# 『大東輿地圖』 白頭山·豆滿江 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地名의 검토\*

— 國境認識, 位置·語源 및 誤記 문제를 중심으로 —

李 康 源\*\*

## A Study on the Place Names Presented in the Area of Baekdu Mountain and Duman River of 『Daedongnyeojido』\*

Lee, Kang-Won\*\*

**요약** : 이 논문은 『대동여지도』의 白頭山·豆滿江 일대에 표기된 몇 가지 지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朝·淸 국경인식, 지명들의 위치와 어원(어의), 그리고 誤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지명은 定界碑·分水峯·石堆·木柵·乾川·連枝峰·分界江上流·分東江·件加堆·市火山·仇乙山·龜岩峰·鬮吾洞·大洞·幹東 등 15개이다. 『대동여지도』의 石堆·木柵 표시는 잘못된 것이며, 分界江上流 역시 위치에 오류가 있다. 이를 통하여 『대동여지도』가 ‘토문강=두만강=분계강’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압록강-정계비-두만강’을 朝·淸 국경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分東江·件加堆·市火山·鬮吾洞 등에 대해서는 여진어(만주어) 어원을 추적하여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고, 仇乙山·龜岩峰에 대해서는 우리말 어원을 추적하여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어원이 불분명한 지명들의 경우에는 위치만이라도 비정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大東輿地圖, 國境, 地名, 定界碑, 分水峯, 石堆, 木柵, 乾川, 連枝峰, 分界江上流, 分東江, 件加堆, 市火山, 仇乙山, 龜岩峰, 鬮吾洞, 大洞, 幹東.

**Abstract** : In this article I try to investigate fifteen place names presented in the area of Baekdu mountain and Duman river of 『Daedongnyeojido』. The aims of the investigation are to clear Jeongho Kim's understanding on the national boundary implicated in the map, to search the etymology of the place names, and to analyze the place names miswritten.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map presents the idea of 'Tomun river = Duman river = Bungye river', and recognizes 'Abrok river-Jeonggyebi-Duman river' as the landmarks of the boundary between Joseon(Korea) and Qing(China). Through the etymological analysis of the place names it will be suggested that some place names(Bundonggang, Geongatoi, Sihuasan, Geolodong and Daedong) originated from Nuzhen(Manchurian), the other place names(Gulsan and Guambong) originated from Korean. The location of the place names will be suggested also.

**Key Words** : Daedongnyeojido, boundary, place names, Jeonggyebi, Bunsuryeong, Seoktoi, Mokchaek, Geoncheon, Yeonjibong, Bungyegangsangryu, Bundonggang, Geongatoi, Sihuasan, Gulsan, Guambong, Geolodong, Daedong, Aldong(Odong).

### 1. 서론

『大東輿地圖』는 우리나라 전통 지도 가운데 가장 우수한 지도로 알려져 있고(장상훈, 2007, 6), ‘한국 지도의 고전’(양보경, 2004)으로 상찬되고 있다. 반면에 김정호가 실제로 전국을 답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들을 종합하여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상태, 1991, 141)이 설득력을 얻었고, 이에 더하여 이전의 여러 지도 및 지리지들과 『대동여지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

들(대표적으로, 김기혁, 2007; 2008; 오상학, 2001; 이기봉, 2005; 2008)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지도들의 서지학적·지도학적 유형과 족보관계에 집중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는 별도로, 조선 최고의 지도라 상찬되는 『대동여지도』에 간도 내지 만주가 매우 소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두고, ‘실망감’을 드러내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이선근(1962)에 의해 작성되었다. 논문의 제목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3).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서부터 영토상실 의식과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이후의 연구들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의 저본은 경성제국대학 총장을 지낸 일본인 篠田治策(1938(신영길 역, 2005))의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선근의 논문이 발표된 해인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編印, 1974), 5-15)이 체결되었다(이강원, 2007b, 54).

최근 국사학계에서 진행된 조·청 국경문제와 관련한 설득력 있는 연구로는 정계비 건립 전후의 북방영토 인식에 대한 강석화(2000; 2007)의 논저가 있다. 또한 청의 지리지·지도를 분석한 배우성(2007)의 연구는 정계비 수립 전후 청의 백두산 일대 수계에 대한 인식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동여지도』의 백두산·두만강 일대에는 여진어(만주어) 내지 몽고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지명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 초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여진어 및 몽고어를 분석한 국어학 및 언어학 분야의 연구들(이기문, 1973; 김동소, 1977; 송기중, 1988; 1990; 1992; 1994; 김주원, 2006; 김주원·이동은, 2004)이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된 지리학, 국사학, 국어학, 언어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조선의 고지도들이나 문헌들에 표기된 백두산·두만강 일대 및 만주지역 지명들의 ‘위치’와 ‘어원(어의)’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략한 언급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송기중(1994)의 연구에서 『龍飛御天歌』와 『太祖實錄』 등에 등장하는 북방 지명들의 위치와 어의를 비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조선 초의 기록들에 등장하는 ‘豆滿(豆漫투문)’과 ‘土門투문’ 그리고 그에 연관되는 일련의 지명에 대해 위치와 어의를 확정하고자 한 바 있으며(이강원, 2007b), 조선후기의 문헌들과 고지도들에 나타나는 豆滿江·土門江·分界江의 위치와 어의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이강원, 2007a). 이 논문은 필자가 앞서 진행한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동여지도』의 白頭山·豆滿江

일대에 표기된 몇 가지 지명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김정호의 국경인식, 지명들의 위치와 어원(어의), 그리고 오기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지명은 定界碑·分水峯·石堆·木柵·乾川·連枝峰·分界江上流·分東江·件加堆·市火山·仇乙山·龜岩峰·鬮吾洞·大洞·幹東 등 15개이다.

필자는 그간 백두산·두만강 일대를 4차례 방문했다. 두 번은 ‘여행’이었고, 두 번은 연구를 위한 답사였다. 필자는 만주 다싱안링 산지의 어룬춘자치기(鄂倫春自治旗) 현지조사를 위해 1998년~1999년 사이 1년 동안 만주에 체류한 적이 있다. 그 기간 중인 1998년 9월 중순 5일간 그리고 2007년 8월 9일~12일의 4일간, 『용비어천가』, 『태조실록』, 『대동여지도』 등에 나타난 지명과 이정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백두산·두만강 일대를 답사한 바 있다. 답사는 일본이 제작한 지도들(參謀本部 陸地測量部 臨時測圖部, 1907; 陸地測量部, 1926;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933)과 중국이 제작한 지도들(延邊朝鮮族自治州民政局 編制, 1991; 吉林省地圖開發應用中心 編制, 2002)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아쉬운 점은 북한 지역을 답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관련 문헌과 지도들을 통하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2. 지명들에 대한 검토

### 1) 定界碑·分水峯·石堆·木柵·乾川·連枝峰·分界江上流

#### (1) 定界碑·分水峯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定界碑’는 조선 숙종 38년(1712년, 청 강희 51년) 5월 15일에 목극등(穆克登)에 의해 세워진 비석을 가리킨다. 『대동여지도』에도 비석 우측 아래에 ‘康熙壬辰定界’라고 표기하고 있다(그림 1). 그러나 목극등이 이 비석을 세우면서 만든 지도를 현지에서 모사한 「壬辰穆胡克澄定界時所模」(『輿地圖』(奎古4709-1)에 수록)<sup>2)</sup>에는 이 비석의 이름이 ‘江原碑’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2).

강희제는 1709년 6월 25일 선교사들을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보내 지도제작 사업을 진행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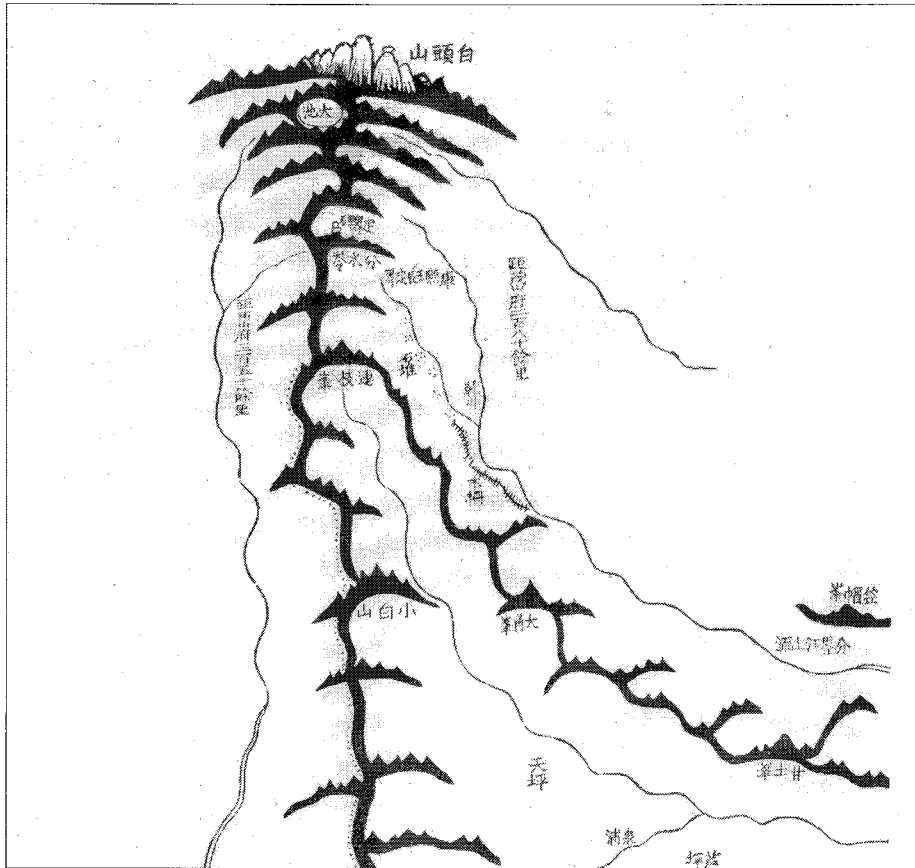


그림 1.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定界碑·分水峯·石堆·木柵·乾川·連枝峰·分界江上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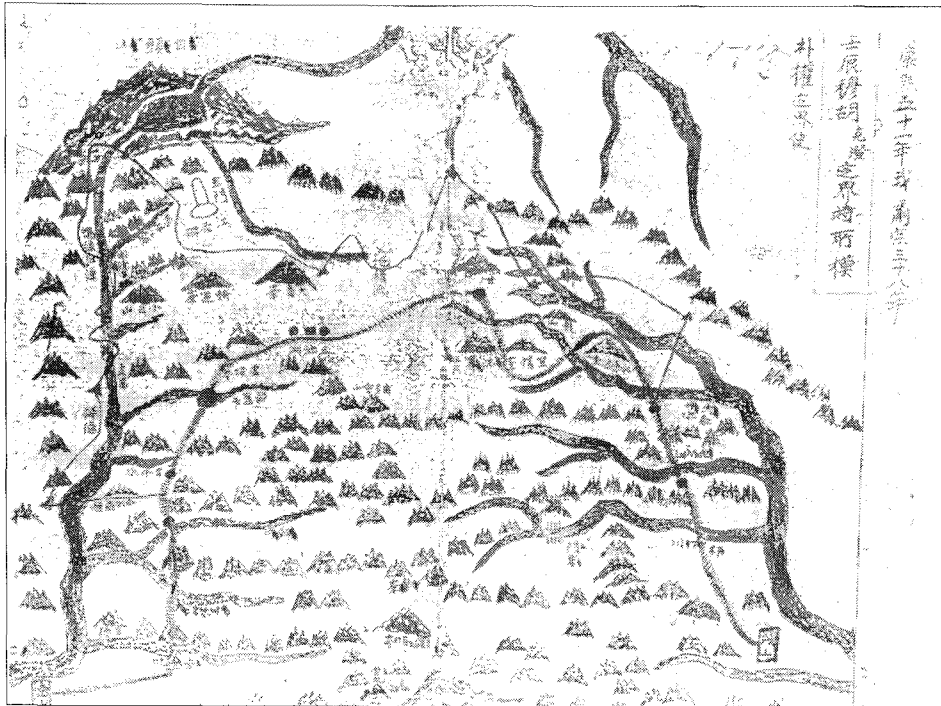
하였으며, 1710년 12월 14일 제작이 완료된 지도를 받게 된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松花江·鴨綠江·豆滿江 사이의 관계와 이 지도에 표시된 압록강·두만강 사이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희제는 목극등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다(이강원, 2007b, 95-96). 목극등의 일차적 임무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나뉘는 지점에 비석을 세우고, 지도를 그리면서 '江原碑'라고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이나 조선 모두 이 비석을 국경을 표시하는 '定界碑'로 인식하고 있었다. 강희제가 압록강과 두만강의 관계에 대해 집착했던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청과 조선의 경계가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 역시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청과의 경계가 설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定界碑'라는 이름으로 지

도들에 이 비석을 표기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sup>3)</sup>에 '分水嶺'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分水嶺'이라는 지명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극등이 비석을 설치하면서 새로이 명명한 것이다. 그가 '분수령'이라는 지명을 명명했다는 것은 비석 건립 당시 역관으로 지켜본 金慶門의 구술을 적은 洪世泰의 『白頭山記』에 기록되어 있다(김지남 외 저(이상태 외 역), 1998, 178). 이 지명을 통하여 그는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 사이의 분수계를 지칭하고자 하였다. '분수령'은 말 그대로 분수계를 의미하며, 산봉우리를 이은 선에 해당하고,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이며, 빗물의 경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비석이 설치된 곳은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분수계 능선의 한 지점이며,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의 분수계이기도 하다(이강원, 2007b, 99)<sup>4)</sup>.

비문과 마찬가지로 『대동여지도』에도 '定界碑'



주: 정계비 비석 표시 밑에 '江原碑'라 쓰여 있다.

그림 2. 「壬辰穆胡克澄定界時所模」(『輿地圖』(奎古4709-1)에 수록)

아래에 '分水嶺'이라 표시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分水嶺'은 목극등의 명명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이 나뉘는 지점을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일부에서 『大東輿地全圖』 서문에 나오는 '山自分水嶺...'이라는 부분을 '산은 스스로 분수령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오상학, 2001, 199), '산은 분수령으로부터...'라고 해야 옳다.<sup>5)</sup>

(2) 石堆·木柵·乾川

『대동여지도』는 定界碑·分水嶺으로부터 우측 동남방향으로 두 개의 물줄기를 표시하고, 그 주변에 石堆·木柵·乾川이라 표기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표기 역시 정계비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비석의 설치 목적은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의 물길이 나뉘는 지점을 확인하여, 조선과 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석 설치 당시 토문강(두만강)의 물길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뚜렷하지 않았다.<sup>6)</sup> 이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역관 金慶門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洪世泰가 쓴 「白頭山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목극등이 말하기를, “토문(두만)의 원류가 중간에 끊어져서 땅 속으로 흐르므로 강계(疆界)가 분명하지 않으니, 가볍게 비를 세우는 의논을 하여서는 안 되겠다.”하고, 이에 두 사람을 명하여 애순과 동행하여 가서 물길을 살피게 하였다. 김응현, 조태상이 뒤따라갔다. 60여 리 가니 해가 저물어 두 사람은 돌아와서 백수(白水)가 동쪽으로 흐른다고 보고했다. ...일을 마치고 산을 내려와 무산에 돌아왔다. 목극등이 (박권과 이선부) 두 분에게 말하기를, “토문강(두만강)의 원류가 끊어진 곳에는 담이나 울타리를 쌓아서 그 아래의 수원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김지남 외 저(이상태 외 역), 1998, 178-179).

『肅宗實錄』(권51, 38년 7월 辛丑)에 따르면, 土築과 木柵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설치하기로 합의되었고, 그해 12월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

바로 토축과 목책이 잘못 설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토축과 목책이 비석으로부터 토문강(두만강)의 원류에 연결되지 않고, 송화강의 지류인 黑石溝—四道白河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정계비 설치 현장에 있었고, 후에 토축과 목책의 설치에도 관여한 許樑과 朴道常은 서울에 압송되어 와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수목이 參天하여 지척을 분변할 수 없는 곳에 小川이 이와 같이 혼잡하여 무식천학한 탓으로 만약 후일에 差員이 잘못알고 복류하는 물에 設柵을 한다면 후일에 염려될 일이 없지 않을 듯하고, 營門을 왕복하는데 旬日 이 걸리게 되면 무인지경에 오래 있을 수 없고, 피로한 인부로 4~5일 걸릴 일에 動役을 한다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형편에 따라 우선 設標하고 營門 에 나가서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이 좋을 듯 하므로, 여러 차원들과 상의한 후 비석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25리까지는 혹은 木柵을 하고 혹은 積石을 했으며, 그 아래 出水處 5리와 乾川 25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산흔이 분명하므로 설표를 하지 않고, 또 아래 湧出處에 이르기까지 40여 리는 목책을 했으니, 이 사이 5~6리는 목석이 없고 토질이 강하기 때문에 土墩을 했을 뿐이다(『肅宗實錄』 권51, 38년 12월 丙辰, 이상태(1996, 116)).

이에 조선 조정은 정계비와 관련된 목책·토축 등의 경계표시 문제를 청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마침 북경에 간 사신이 장계에서 목극등의 전언이라고 해서 금후 다시는 심사하지 않을 터이니 염려할 것이 없고, 경계표시 설치작업도 농한기를 기다려 역사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肅宗實錄』 권51, 39년 3월 壬辰, 이상태(1996, 117))고 하자 안심하게 되었다. 숙종 39년(1713년) 4월 10일 영의정 李瀾는 백두산의 정계한 곳은 고산이거나 심곡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積石을 하거나 목책을 세워 뒷근심이 없게 하기를 임금에 청하였고, 숙종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肅宗實錄』 권51, 39년 4월 丁巳, 이상태(1996, 117)). 백두산 정계비와 경계표시의 재심사 여부가 이 정도로 일단락된 뒤인 숙

종 39년 윤 5월 27일 목극등이 흠정차사로 우리나라에 왔다. 그는 토문강(두만강)의 수원 문제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었다. 그와 동행한 부칙사가 백두산의 지도를 보여 달라고 하자 숙종은 지도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정계비와 경계표시 문제는 두 나라 간의 정확한 확인 없이 끝나게 되었다(이상태, 1996, 118).

이상을 통하여, 정계비 건립 후 목극등이 조선 측에 요구한 정계비로부터 토문강(두만강)까지의 목책과 토축의 설치가 정반대로 ‘定界碑—黑石溝—四道白河—松花江’으로 이어지는 물길에 잘못 설치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해 조선 정부 역시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사실은 『白頭山定界碑地圖』(奎 26675; 26676, 1887년)에서도 확인된다. 이 지도에서는 석퇴·토퇴가 ‘黃花松溝子’ 우안에 설치된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黃花松溝子’는 오늘날 ‘黑石溝’와 같은 위치로서 松花江 물줄기로 이어진다.

정계비로부터의 경계표시가 黑石溝로 이어지고 다시 松花江 물줄기로 이어진다는 점은 1908년 백두산 지역을 실측한 청의 奉吉勸界委員選用知縣 劉建封의 『長白山江志略』에 실린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그림 3). 이 지도에는 정계비로부터 黑石溝를 따라 石堆·石堆·土堆가 표시되어 있고, 이는 四道白河로 이어지며, 결국은 松花江으로 연결된다.

『白頭山定界碑地圖』(1887년)와 劉建封의 『長白山江志略』에 실린 지도(1908년)에 표시된 정계비로부터의 경계표지(목책·토퇴·석퇴)에 의거하여 오늘날의 하천지명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는 경로를 표시하면, ‘定界碑—黑石溝—四道白河—五道白河—二道白河—松花江—黑龍江—아무르강—오호츠크해’가 된다.

석퇴와 토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1957년 8월~9월 사이 백두산을 답사한 吉林省 測繪 부문 ‘여행단’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여행단’은 천지 동남 5km 지점에서 서쪽으로는 大旱河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黑石溝와 이웃한 곳에서 정계비의 귀부를 발견하고, 黑石溝 동남쪽에서 石堆와 土堆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黑石溝가 발단하는 몇 리 지점에서 ‘土門’을 발견하였다. 이때의 ‘토문’은 ‘土石封堆之下 兩岸對立如門’과 같은 것이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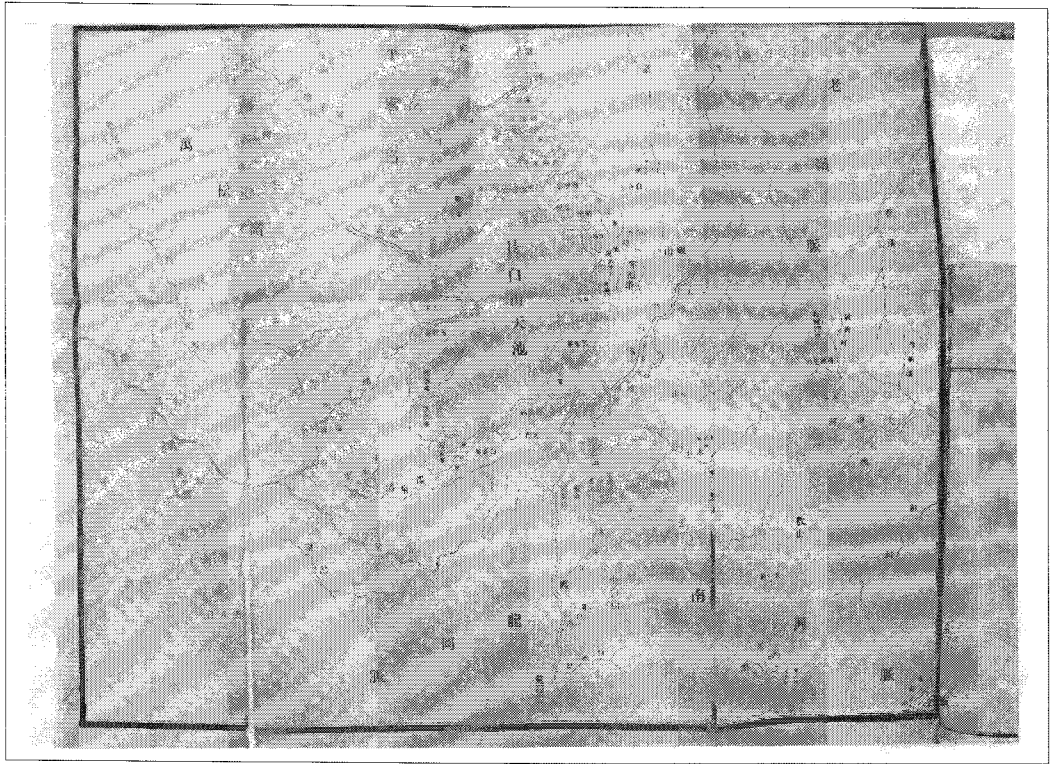


그림 3. 劉建封의 『長白山志略』에 실린 지도에 나타난 石堆·石堆·土堆

리고 黑石溝 내에는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어 양쪽의 토석이 마주보고 서 있어서 ‘門’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中國測繪史編輯委員會, 2002, 617-618). 이때의 ‘土門’은 정계비문 중의 ‘土門’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1964년 『朝中邊界議定書』(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編印, 1974, 16-100)에 경계표지를 열거하면서 ‘黑石溝(土門江)’라는 표현을 썼다(제7조; 제8조). 만약 이 조약문 중의 ‘黑石溝(土門江)’가 정계비 중의 ‘土門’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면, 이 의정서는 합의되지 못했을 것이다. 정계비상의 ‘土門’은 ‘투먼(Tumen)’ 곧 阿桂의 『滿洲源流考』(1778년) 이후에는 ‘圖們江’으로 불린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부르는 ‘豆滿江’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토돈과 목책을 잘못 연결시켰을 뿐이다(이강원, 2007b, 110). 토돈·목책·석퇴 등을 설치한 사람들은 조선의 許樑과 朴道常 그리고 함경도의 인부들이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대로 許樑과 朴道常이 서울로 압송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石堆와 木柵이 『대동여지도』에 전혀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정계비·분수령으로부터 石堆와 木柵이 ‘分界江上流’라고 표시된 하천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 하천은 오늘날 우리가 ‘豆滿江’이라고 부르는 하천으로 이어진다. 『대동여지도』는 정계비로부터 설치된 석퇴·목책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표시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이러한 오류로부터 우리는 이 지도가 실제 답사를 통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떠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백두산을 여덟 번 답사했다.”는 이야기는 『대동여지도』가 정계비로부터 설치된 석퇴·목책을 잘못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퇴와 목책은 정계비로부터 동남방향이 아닌 서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만약 김정호가 백두산을 답사했다면, 정계비를 확인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 그가 백두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선후기의 豆滿江·分界江 개념의 혼란상(이강원, 2007b) 이 지도에 드러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乾川’은 석퇴·목책의 설치 근거 중의 하나이다. 백두산의 정계비 설치 지역은 화산지형이며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은 伏流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두만강의 최상류인 紅土水, 石乙水, 紅丹水는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다. 홍토수는 북한 무두봉 동북 쪽에서 발원하며, 발원지에서는 비가 올 때만 하천의 형태가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건천이 되는 ‘時令河’ 혹은 ‘季節河’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단에 이르러서는 모든 강물이 땅의 갈라진 틈과 浮石層 밑에 스며들어가 伏流(暗流)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하천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하단에 이르러서는 복류하던 물이 하상으로 솟아나 흐르기 시작한다. 석을수는 대연지봉 동남에서 발원하며, 상단은 시령하 혹은 계절하의 성격을 띠고, 하단에 이르러서야 정상하천이 된다. 홍단수는 북한의 삼지연에서 발원하여 동북방향으로 흐른다. 약 6킬로미터를 복류한다(유충걸·심혜숙, 1993, 159). 따라서 하천의 흐름을 관찰하기 쉽지 않다.

목극등이 정계비를 설치한 시점에는 이 일대에 비교적 수량이 많았을 것이다. 金指南의 『北征錄』에 나타난 날씨 기록을 계산해보면, 김지남이 백두산 지경인 甲山에 도착한 1712년 4월 12일 이후 목극등이 정계비 설치 지점을 찾은 5월 11일까지 한 달 사이에 무려 14일 동안 눈·비·우박이 내렸다(이강원, 2007b, 101).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류하는 하천으로 인해 정계비로부터 토문강(두만강)까지의 물길을 분명하게 확정짓지 못했다. 또한 한겨울인 1712년 12월 석퇴·토축·목책을 설치하기 위해 동원된 조선측 인원들도 이 지역의 이러한 계절적·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정계비로부터 토문강(두만강)까지의 물길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동여지도』는 이 지역 하천의 이러한 계절적·지형적 특성을 ‘乾川’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連枝峰

『대동여지도』에는 분수령으로부터 이어지는 산줄기에 ‘連枝峯’이라는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반면, 조선후기의 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이곳은 ‘臙脂峯’으로 표시되고 있다. 『北關地圖』(奎古4709-16), 『白頭山定界碑地圖』(奎古266676) 등이 그 예이다.

‘臙脂’는 자주색과 빨강색을 섞어 얻어지는 색이다. 1872년 지방지도 중 함경도 『茂山地圖』는 이곳을 ‘臙脂峯’이라 표시하고, 산봉우리를 자주색과 빨강색을 섞은 연지색으로 채색하고 있다. 『대동여지전도』는 서문에는 ‘燕脂峯’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도에는 ‘連枝峯’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壬辰穆胡克澄定界時所模』(규장각소장 輿地圖(古 4709-1)에 수록)에는 ‘妍芝峯’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지도들이 ‘연지봉’이라는 우리말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하자면 ‘臙脂峯’이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연지봉은 해발고도 2,357m, 상대고도 158m, 기저직경 1.5km의 화산원추체(火山圓錐體)로서(유충걸·심혜숙, 1993, 55), 일종의 분석구(噴石丘: cinder cone)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분석구는 적갈색의 다공질 쇄설물인 스코리아(scoria)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분석구를 스코리아콘(scoria cone) 또는 암재구(岩滓丘)라고 한다(권혁재, 2002, 409; 417). 육안으로 바라 본 스코리아콘의 색깔이 연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지봉’이라 했을 것이니, 한자로는 ‘臙脂峯’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에는 ‘臙脂峯’으로 표기되어 있고, 分水嶺과 小白山을 잇는 한 봉우리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는 ‘連枝峯’이라 표기하고 있고, 여기서 산줄기가 둘로 갈라지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대동여지도』는 산줄기가 갈라진다는 점, 바꾸어 말해서 두 산줄기가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봉우리라는 점을 나타내고자 ‘連枝峯’이라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산줄기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동여지도』의 지도제작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4) 分界江上流

『대동여지도』에서 ‘定界碑·分水峯—土堆—乾川—木柵’으로 이어지는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 ‘分界江上流’라는 지명표기가 나타난다. 오늘날의 하계망과 비교하면, 이 하천은 두만강입에 틀림이 없다. 『대동여지도』의 온성(穩城) 부근에 ‘豆滿江’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 역시 이 하천이 오늘날 우리가 ‘두만강’으로 부르는 하천이라는 것을 방증한

다. 그러나 김정호는 여기에 ‘豆滿江上流’로 표기하지 않고, ‘分界江上流’라고 표기하고 있다.

김정호가 제작한 또 다른 지도인 『청구도』에서는 ‘乾川’에서 발원하여 ‘分界江上流’에 이르는 하천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흐름이 끝까지 표시되고 있지 않다(그림 4). 이것이 복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을 알 수 없어서 표시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구도』에서는 석퇴나 목책이 ‘乾川’이나 ‘分界江上流’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청구도』에서는 ‘壬辰定界碑·分水嶺—木柵—石堆—木柵—豆滿江’이 하나의 하천으로 연결되며, ‘乾川’—‘分界江上流’는 하나로 이어지는 별도의 하천이다.

물론 『청구도』에 표시된 목책·석퇴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계강이 壬辰定界碑와 관계가 없다고 표시한 점은, 왜 그가 이렇게 인식했는지 그 배경을 검토해야겠지만,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 『청구도』 제작 당시 김정호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分界江은 오늘날

의 하이란강(해란강; 海蘭河)이기 때문이다(이강원, 2007b, 112-115).

『대동여지도』가 정계비에서 시작되는 석퇴·목책이 分界江으로 이어지고, 분계강이 다시 豆滿江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는 『청구도』에서와는 달리 두만강이 곧 ‘分界江’(‘경계를 나누는 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의 문헌들과 지도들에서 나타나는 ‘分界江’이라는 지명이 어원상 ‘경계를 나누는 강’이라는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자세한 것은 이강원, 2007b, 105-115 참조). 申景濬의 「疆界考」, 徐命膺의 「遊白頭山記」, 成海應의 「白頭山記」, 『萬機要覽』, 그리고 여러 지도들에 ‘分界江’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이를 ‘경계를 나누는 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기록들은 이 하천의 지리적 실체와 관련하여 단일하고 일관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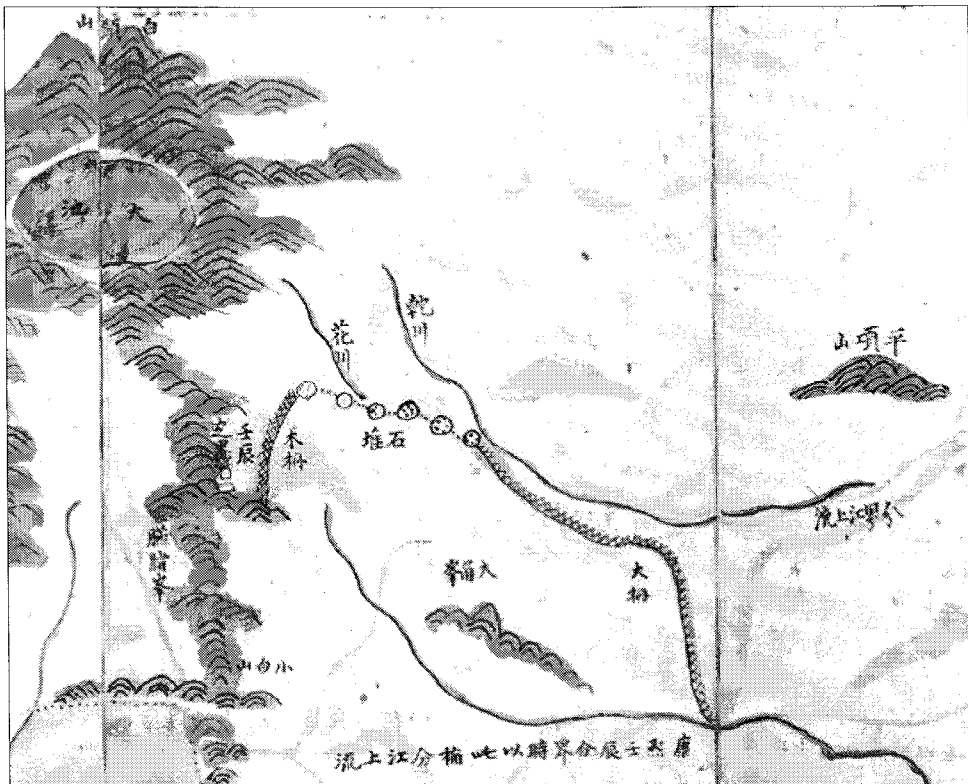


그림 4. 『靑邱圖』(奎古4709-21)의 백두산 일대(부분)



‘分界江’이라는 지명은 ‘경계를 나누는 강’이라는 의미에서는 실체가 없다. ‘分界’는 여진어(만주어) 단어 중 우리식 한자음으로 ‘풍가(豊家)’, ‘풍계(豊溪, 豊界)’, ‘분계(分界)’ 등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制勝方略』第1卷 列鎮防禦 鍾城鎮 항목에는 ‘豊家’가 들어간 部落(부족) 명칭과 鍾城으로부터의 거리, 추장 이름, 호수가 기록되어 있다. ‘豊家上端部落’, ‘豊家洞口部落’, ‘豊家表洞部落’, ‘豊家上洞部落’, ‘豊家洞多伊部落’, ‘豊家水洞部落’, ‘豊家吳加善部落’ 등이 그것이다.<sup>7)</sup> 모두 중성진에서 서쪽으로 2息 10리(곧 70리)~2息 25리(곧 85리) 떨어져 있다. 會寧鎮 항목에는 ‘豊家部落’이 회령진으로부터 서쪽으로 2일 반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sup>8)</sup> 이것을 지도상에서 확인하면 오늘날 하이란강(海蘭河) 강변의 龍井市 시가지 일대로 추정된다. 『제승방략』의 이 지명들은 여진어의 음을 취한 것이다.

효종 9년(1658년) 제2차 나선정벌에 나섰던 申瀏는 『北征錄』에서 “5월 3일 맑음. 豊溪, 件可吐 두 강을 건너 件可吐강가에서 묵었다.”<sup>9)</sup>고 쓰고 있다. 여기서 ‘豊溪’는 여진어(만주어)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申瀏가 건넌 ‘豊溪江’은 오늘날의 하이란강(海蘭河)이다. 그는 1658년 5월 2일 오전 7시에 두만강을 건너고, 古羅耳嶺을 넘어 法順에서 하루를 묵고, 5월 3일 豊溪·件可吐 두 강을 건너 件可吐 강가에서 묵었다. 古羅耳嶺은 古羅耳洞 뒤에 있으며, 고라이둥은 會寧府 高嶺嶺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떨어져 있고, 法順(伐叱崇)은 고령진으로부터 2息(60리)여 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豊溪江은 고령진에서 서쪽으로 60여 리 이후로부터 件可吐江 이전에 있어야 한다. 件可吐江은 오늘날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이므로(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 뒷부분의 ‘件加堆’에 대한 논의를 참조), ‘豊溪江’은 오늘날의 하이란강(海蘭河; 해란강)이다. 만약 신류가 그 강을 ‘경계를 나누는 강’



그림 5. 『地乘』(奎15423) 함경도 온성부 지도(부분)

으로 알았다면, 분명 ‘分界江’이라고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계비 설치 이후에 제작된 『西北界圖』(奎古4709-89)<sup>10)</sup>에는 오늘날 하이란강(海蘭河)에 대하여 “豊界江又分界江”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豊界江’이라고도 하고 ‘分界江’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명이 표기된 것은 어떤 음가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이강원, 2007b, 112-113).

『地乘』(奎15423)의 함경도 온성부 지도에는 ‘豊界江一名分界江’과 ‘件乙加退江’<sup>11)</sup>이라는 표기가 나타난다(그림 5). 『輿地圖』 함경도 온성부 지도(奎古4709-68)에도 ‘豊界江一名分界江’이라는 표시와 ‘件乙加退江’<sup>12)</sup>이 나타난다(그림 6). ‘豊界江一名分界江’은 ‘豊界江, 다른 이름으로는 分界江’이라는 뜻인데, ‘豊界’와 ‘分界’가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서북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豊界’나 ‘分界’는 한자로서의 의미보다는 어떤 음

가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명이 표시된 위치로 보아 오늘날 하이란강(海蘭河)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승방략』에 ‘豊家’, 신류의 『북정록』에 ‘豊溪’, 『서북계도』 및 『지승』에 ‘豊界·分界’로 표시된 지명은 여진어(만주어)의 ‘퐁커(Fungke: 麻痺)’, ‘퐁쿠(Fungku: 人絹; 麻)’, ‘퐁커리 히얀(Fungkeri hiyan: 薰草)’, ‘퐁커리 일하(Fungkeri ilha: 薰蘭)’와 관련이 있다. 모두 ‘삼(麻)’ 또는 ‘돼지’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승방략』 제1권 열진방어 鍾城鎮 항목에 “尙家麻坡部落, 西距二息十里, 箇長分加里等一百五十七戶(상가마파부족, (중성으로부터) 서쪽으로 2식 10리(곧 70리)이며, 추장 분가리 등 157호이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尙家麻坡部落’은 거리로 보아 오늘날 龍井市 시가지 일대의 하이란강(海蘭河)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앞서의 ‘豊家’로 시작되는 부족들의 위치와 유사하다.



그림 6. 『輿地圖』(奎古4709-68) 함경도 온성부 지도(부분)

『제승방략』의 部落名(부족명)은 ‘[여진어]+[지표나 위치의 특징에 관련된 한자]+[부락]’ 순으로 기록되는 패턴이 종종 발견된다. 여기서 尙家는 여진어(만주어)이며, ‘상가(Sangga: 동굴(窟窿); 구멍(孔眼)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麻坡’는 한자로 지표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곧 ‘삼(麻)의 언덕’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제승방략』의 ‘豊家’ 지역이나 이 ‘尙家’ 지역은 거의 같은 지역이며 ‘麻(삼)’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蕙草’는 ‘佩蘭’, ‘零陵香’으로 불리며, 그 잎이 삼(麻)과 비슷하다. 따라서 ‘麻坡’는 ‘蕙草가 특징적인 언덕, 고개, 비탈, 독, 제방’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결국, ‘풍가(豊家)’, ‘풍계(豊溪, 豊界)’, ‘분계(分界)’의 어원은 여진어(만주어) ‘풍커(Fungke: 麻痺)’, ‘풍쿠(Fungku: 麻)’, ‘풍커리 히안(Fungkeri hiyan: 蕙草; 돼지풀)’, ‘풍커리 일하(Fungkeri ilha: 蕙蘭)’ 등의 ‘풍커(Fungke)’ 혹은 ‘풍쿠(Fungku)’ 혹은 ‘풍커리(Fungkeri)’일 것이다. ‘풍커(Fungke)’ 혹은 ‘풍쿠(Fungku)’에 여진어(만주어)에서 관형격을 나타내는 ‘i’가 추가되어 ‘풍케 비라(Funkei bira)’ 또는 ‘풍쿠 비라(Fungkui bira)’가 되었거나(bira는 강을 의미한다), 蕙草·蕙蘭에서 유래한 ‘풍커리(Fungkeri)’에 ‘비라(bira)’가 합쳐져 ‘풍커리 비라(Fungkeri bira)’가 되었을 것이다. 이를 ‘豊家’, ‘豊溪江’, ‘豊界江’, ‘分界江’ 등으로 옮긴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尙家麻坡部落’의 주장 이름이 ‘分加里’이다. 이는 여진어(만주어) ‘풍커리(Fungkeri)’를 나타낸 것이 분명하다. ‘풍커리(Fungkeri)’는 ‘풍긴(Funggin: 늙은 돼지; 큰 돼지)’의 형용사형이다. ‘풍커리 히안(Fungkeri hiyan: 蕙草)’은 ‘돼지풀’로도 불린다. 尙家麻坡部落의 주장 이름 ‘分加里’는 결국 ‘늙은 돼지’ 또는 ‘큰 돼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풍가(豊家)’, ‘풍계(豊溪, 豊界)’, ‘분계(分界)’라는 지명은 ‘돼지’라는 의미의 여진어(만주어)를 옮겨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진어(만주어)에서 ‘돼지’와 ‘삼(麻)’은 ‘풍커리 히안(Fungkeri hiyan: 蕙草; 돼지풀)’에서 보듯이 어원상 연결되어 있다. 『乾隆十三排圖』에는 오늘날의 부얼하통강과 하이란강 사이에 ‘艾丹和屯(Aidan hoton)’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여진어(만주어) ‘아이다간 호톤(Aidagan hoton)’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호톤(Hoton)’이 ‘城’을 뜻하므로 지도들에 ‘艾丹城’으로도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다간(Aidagan)’은 ‘숫멧돼지’를 뜻한다. 따라서 ‘숫멧돼지의 성’으로 풀이되며, 이상에서 분석한 ‘풍가(豊家)’, ‘풍계(豊溪, 豊界)’, ‘분계(分界)’ 등의 돼지와 관련된 어의 및 위치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풍가(豊家)’, ‘풍계(豊溪, 豊界)’, ‘분계(分界)’는 전체적으로 보아 ‘삼(麻; 또는 그에 어원적으로 연관되는 돼지)’과 관련된 지명이며, ‘경계를 나눈다.’는 의미의 ‘分界’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成海應의 『白頭山記』 중에 ‘杉谷分界江’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杉谷은 바로 ‘삼(麻)의 골짜기’를 의미한다.

한편, 연변대학의 심혜숙은 ‘하이란강(海蘭河)’의 ‘하이란(海蘭)’이 만주어로서 ‘비술이 많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沈惠淑, 1994, 13). 비술나무는 비술나무 또는 개느릅나무라고도 불린다. 한자로는 ‘榆’로, 만주어로는 ‘하일란(Hailan)’으로 표기된다. 그렇다면, ‘豊家’와 ‘豊溪江’, ‘豊界江’, ‘分界江’ 등은 하이란강의 특정 구간을 지칭하는 지명이 된다. 이것은 신경준, 서명웅, 성해웅, 그리고 『만기요람』의 저자들이 ‘分界江’을 하이란강(海蘭河)과 이어지는 하천(곧 海蘭河의 일부 구간)으로 이해한 것과 일치한다(이강원, 2007b, 113-11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分界江’이라는 지명은 어원상 ‘경계를 나누는 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위치는 오늘날 하이란강의 龍井市 시가지 일대 구간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대동여지도』는 ‘定界碑·分水峯—土堆—乾川—木柵—分界江上流—豆滿江’이 하나의 물길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정계비에 나타나는 ‘土門’이라는 강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대동여지도』는 정계비의 土門江이 곧 豆滿江이며, 두만강이 곧 分界江(‘경계를 나누는 강’)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동여지도』가 ‘압록강—정계비—두만강’을 조선과 청의 영토를 구분하는 지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13)</sup>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토문강=두만강=분계강’이라는 인식은 물론 오류이다. ‘토문강=두만강’은 옳지만, ‘토문강=분계강’이나 ‘두만강=분계강’이라

는 인식은 오류이다. 그러나 정계비 수립 이후 토 문강·분계강·두만강이라는 세 하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다양했으며, 그 다양성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지리적 정보의 부재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동여지도』의 이러한 오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 일대의 수계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인식과 묘사는 을유감계(1885)·정해감계(1887)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sup>14)</sup>

2) 分東江·件加堆·市火山·仇乙山·龜岩峰·  
鬲吾洞·大洞·斡東

(1) 分東江·件加堆·市火山

『대동여지도』의 최상단 온성 부근에는 서북쪽에서 豆滿江으로 합류하는 하천이 그려져 있고, '分東江'이라 표시되어 있다. 동시에 그 바로 위쪽에

'件加堆', '市火山'이라는 지명도 등장한다(그림 7).

'分東江'은 '分界江'을 잘못 판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동여지도』 이전의 상당수의 지도들이 이 하천을 '分界江'이라 표시하고 있고, 김정호가 그러한 지도들을 참조하였을 것이며, '東'과 '界'라는 한자가 형태상 유사하기 때문에, 지도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분계강'을 '분동강'으로 판각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각이 아닌 필사본인 『청구도』에도 '分東江'이라고 한 것을 보면(그림 8), 단순히 판각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필사본인 『청구도』의 백두산 부근에 '分界江'이 표시되어 있는데, 동일한 글자를 같은 지도에서 '分東江'이라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동여지도』의 백두산 부근에도 '分界江'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分界江'이라 하지 않고, '分東江'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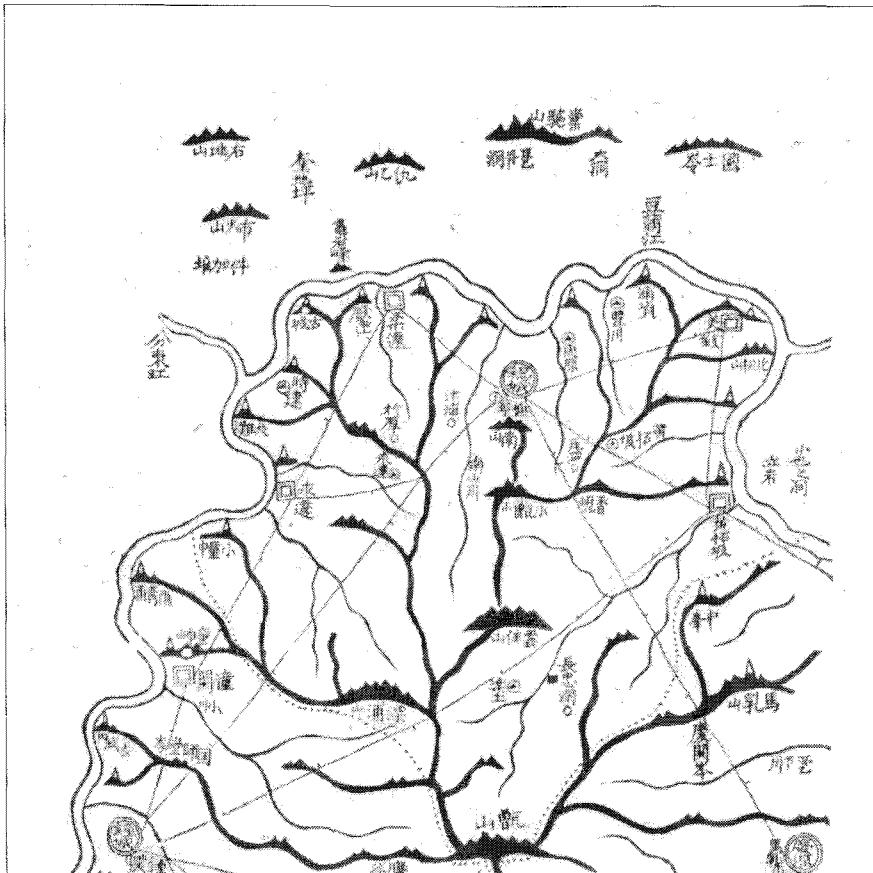


그림 7.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分東江·件加堆·市火山·龜岩峰·仇乙山·鬲吾洞·大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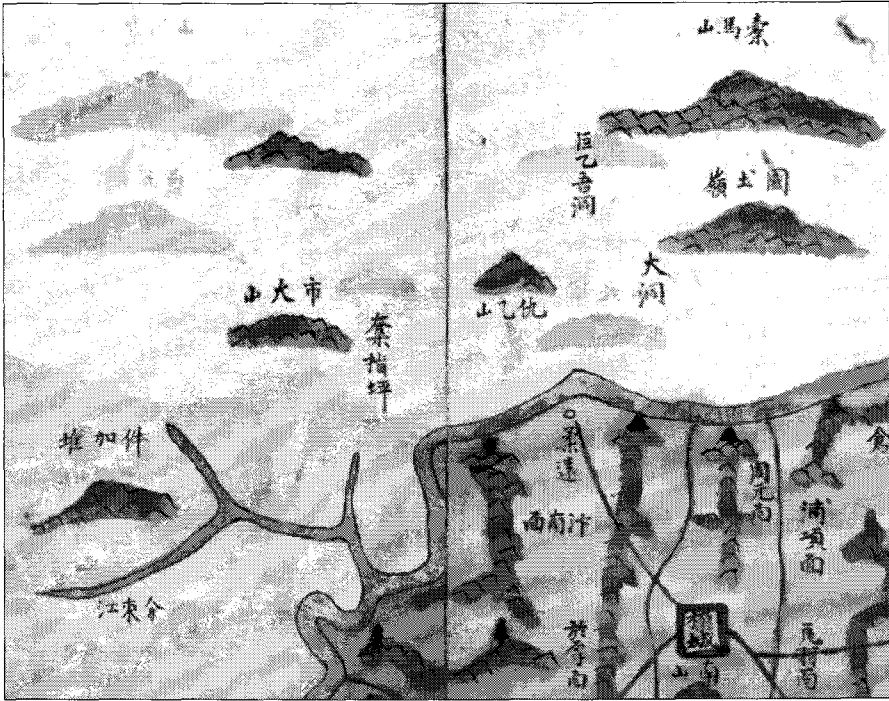


그림 8. 『靑邱圖』(奎古4709-21)에 나타나는 分東江·件加堆·市火山(市大山)·仇乙山

한 것 역시 『청구도』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작자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分東江’이라는 표기는 중국식 한자음으로 ‘布爾哈圖必拉’(『乾隆十三排圖』), ‘卜兒哈土河(부얼하투강)’(『西北界圖』), ‘布爾哈通河(부얼하통강)’(현재 지명) 등으로 표시되는 여진어(만주어)를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식 한자음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이 지명의 여진어(만주어) 음가는 ‘불가투 비라(Burgatu bira)’ 또는 ‘불하투 비라(Burhatu bira)’이다. ‘비라(Bira)’는 河(江)을 의미한다. ‘불가투(Burgatu)’ 또는 ‘불하투(Burhatu)’의 어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추정이 있다. 첫째는 버드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여진어(만주어) ‘불가(Burga)’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崔乃夫 主編, 2002, 6387; 牛汝辰, 1995, 40).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둘째는 버드나무를 의미하는 몽고어(史爲樂 主編, 1995, 150)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역시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셋째는 ‘연기가 피어오르다’는 뜻을 가진 여진어(만주어) ‘불가삼비(Burgašambi)’에서 유래했다는 설(崔乃夫 主編, 2002, 6387; 史爲樂 主編,

1995, 150)이다. 이 지역에 ‘연지(煙集)’라는 지명이 존재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정확한 어원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버드나무와 관련된 여진어(만주어)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버드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불가(Burga)’에 복수형 어미 ‘터(te)’가 더해지고, 거기에 관형격 ‘이(i)’가 합해져서 ‘불가터이(Burgatei: 버드나무 가지들의)’가 되며, 여기에 강을 의미하는 ‘비라(Bira)’가 합해져, ‘불가터이 비라(Burgatei bira: 버드나무 가지들의 강)’가 된다. 실제 발음은 ‘불가투 비라(Burgatu bira)’로 변한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원을 의식하고 발음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주족들이 ‘불가투 비라(Burgatu bira)’를 발음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말로 ‘불가통 비라(불가통허(河))’(또는 ‘불하통 비라(불하통허(河))’)라고 들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미에 ‘河(he)’가 붙는 경우에 ‘투’가 ‘통’으로 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현재 중국의 지명표기가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김정호는 ‘土門江=豆滿江=分界

江'이라는 관점에서 있다. 따라서 이 강에 대해 경계를 나눈다는 의미의 '分界江'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이전 지도들의 '分界江'이라는 표기와 전문을 통해 들은 현지 발음('불가통' 또는 '불하통')의 중간을 택하여 '分東江'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分東江'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청구도』와 『대동여지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는 오늘날의 하이란강(海蘭河)으로 추정되는 하천에 표시된 반면, 후자는 오늘날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과 가야강(嘎呀河)이 합류한 후의 가야강으로 추정되는 하천에 표시되었다는 점이다.<sup>15)</sup>

이러한 점은 '件加堆'라는 지명과도 연관된다. 『서북계도』에는 '件乙加退江'이 나타난다. 오늘날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으로 불리는 하천에 표시되어 있다. 『地乘』(奎15423)과 『輿地圖』(奎古4709-68)의 함경도 온성부 지도에도 각각 '件乙加退江'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며, 역시 오늘날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으로 불리는 하천에 표시되어 있다.

청에서 만든 『康熙皇輿全覽圖』, 『雍正十排圖』, 『乾隆十三排圖』 등에는 '件乙加退江'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기방식으로 보아 '件乙加退江'이라는 지명은 우리식 한자음으로 여진어(만주어) 발음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한자음에서 한글 받침의 'ㄹ'을 표기하는 데 한자 '을(乙)'이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일대 하천지명에 '江'이라는 표현도 거의 쓰이지 않으며, 대신 '河' 또는 '必拉'<sup>16)</sup>라는 지명이 사용된다. '件乙加退'를 통하여 표시하고자 한 음가는 '걸가퇴'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 1월 19일, 선조 37년 8월 8일, 광해군(중초본) 4년 6월 5일, 숙종 5년 12월 12일자 기사에서 동일한 지명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선조 37년의 기사<sup>17)</sup>와 숙종 5년의 기사<sup>18)</sup>에 나타나는 '件乙加退'는 전후 맥락으로 보아 오늘날의 부얼하통강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앞서 언급한 『서북계도』, 『지승』 및 『여지도』에 '件乙加退'라는 지명이 기록된 것은 이러한 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件乙加退江'은 우리식 한자이기 때문에 '걸가퇴강'으로 읽어야 한다. 이는 여진어(만주어) '갈가터이 비라(Gargatei bira)'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갈가터이(Gargatei)'는 '나무의 가지', '하천의 지

流(分流)' 또는 '물길이 갈라지는 곳(河汊)'이라는 뜻을 가진 '갈간(Gargan)'에서 유래했다. 여진어(만주어)의 '갈가타(Gargata: 단독의 것, 별도의 것)', '갈기얀(Gargiyan: 가지가 벌어진)', '갈가남며(Garganame: 가지가 나뉜다)', '갈강가(Gargangga: 가지 투성이의)' 등이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어간이 '갈가(Garga)'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어간에 복수형 어미 'te'와 관형격 'i'가 더해져 '갈가터이(Gargatei: 여러 갈래들의)'가 되고, 강을 의미하는 '비라(Bira)'가 합쳐져 '갈가터이 비라(Gargatei bira: 여러 갈래들의 강)'가 된다. 실제 발음을 들어보면, '갈가테 비라(걸가테 비라)' 혹은 '갈가투 비라(걸가투 비라)'로 들린다. 따라서 '갈가터이 비라(Gargatei bira)'가 곧 '件乙加退江'이며, '여러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형학적으로 말하자면, 망류하천(網流河川: braided stream) 내지 분류(分流: distributary)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0)</sup>

'件乙加退江'의 이러한 어원 추정은 申瀾의 『北征日記』 1658년 5월 3일과 4일자의 기록에 비추어도 타당성을 갖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초3일 맑음. 지혜(者兮)에서 아침을 먹고 풍계(豐溪)와 건가토(件可吐) 두 강을 건너 건가토강가에서 묵었다. 초 4일 비가 내림. 아침은 일래빌라(一來非羅)에서 먹고 궁곳동(弓仇叱洞)에서 묵었다.

여기서 그는 '件可吐'를 江으로 기록하고 있다. '풍계(豐溪)'는 앞서 언급한 豐界·分界와 같은 강이고, 곧 오늘날의 하이란강(海蘭河)이며, '일래빌라(一來非羅)<sup>21)</sup>'는 오늘날의 이란강(依蘭河)이다. 따라서 '件可吐江'은 하이란강과 이란강 사이에 있어야 한다. 하이란강과 이란강 사이에 있는 강은 오늘날의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이다. 따라서 申瀾가 묵은 곳은 오늘날의 부얼하통강이며, 이 강이 곧 '件可吐江(件乙加退江; 件加退江; 件加堆江)'이다.<sup>22)</sup> 그가 이란강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강을 건너지 않았으므로, 그는 오늘날 연지강(煙集河)의 우안, 부얼하통강의 북안, 곧 연지 시내의 쥐즈



제(局子街) 동부 일대에서 목었을 것이다.

이 일대의 지형을 살펴보면,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의 전구간 중 특이하게 현재의 龍井市 老頭溝鎮 官道村 부근의 靑龍洞에서부터 하이랑강이 합류하는 城子山山城 부근까지 긴 형태의 분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내부에 동서 약 35킬로미터 남북 최대 약 3킬로미터 정도의 평원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원 구간에서 부얼하통강은 망류현상을 보인다. 부얼하통강 자체가 서쪽의 높은 산지에서 퇴적물들을 운반하고, 이 분지의 남쪽과 북쪽의 산곡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하천들이 평원을 가로지르는 부얼하통강에 합류하면서 퇴적물들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하도를 유지하면서 흘러내려오던 부얼하통강이 龍井市 老頭溝鎮 官道村 부근의 靑龍洞을 지나면서부터 운반력이 떨어지고, 그에 더하여 남과 북의 산곡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을 만나면서 망류하다가, 城子山山城 부근에서는 다시 하나의 하도를 이루어 흘러나간다.

현재 이 구간의 부얼하통강에는 수리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서 망류현상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昭和 8年(1933년)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가 발간한 『滿洲十萬分一圖』「延吉七號: 銅佛寺」도엽<그림 9>

을 살펴보면, 망류현상 내지 분류의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곡류하는 하천에 인공제방(圍土)이 축조된 것을 하천의 거의 전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수로 인하여 망류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공제방을 쌓은 것이다.<sup>23)</sup> 이는 조선인들의 이주와 논농사를 통한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 이전에 이 평원에서는 망류현상 내지 분류를 쉽게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龍井市 老頭溝鎮 官道村 부근의 靑龍洞에서부터 하이랑강이 합류하는 城子山山城 부근까지의 부얼하통강의 별칭이 ‘여러 갈래들로 나뉘는 강(網流하는 江 또는 分流)’이라는 의미의 ‘갈가터이 비라(Gargatei bira)’, 곧 ‘件乙加退江(件可吐江; 件加退江; 件加堆江)’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동여지도』의 慶源 阿山 부근에 표시된 ‘件加退’라는 지명에서도 확인 된다. 이 지명은 봉수에 표기되어 있다. 이는 『제승방략』 제1권 열진방어 阿山堡 항에 기록된 봉수의 명칭과 일치한다. 위치가 다른 두 지점에 동일한 지명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 지명이 지형을 묘사하는 일반 명사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여러 곳에 이 지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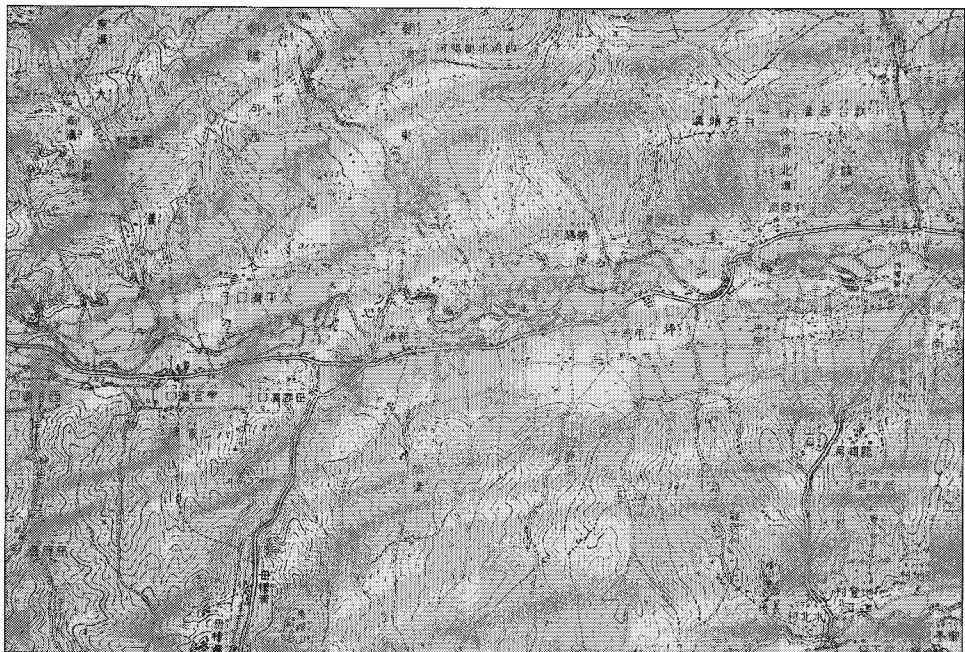


그림 9. 『滿洲十萬分一圖』「延吉七號: 銅佛寺」(1933년) 도엽(부분)

‘件加退’烽燧는 ‘하천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망류현상 내지 분류)’과 관련이 있는 봉수이다. ‘件加退’烽燧가 있는 곳은 현재 북한의 새별군과 은덕군의 경계에 있는 백동산(栢洞山: 310미터)이다. 이곳은 북쪽으로 五龍川(『대동여지도』의 吾弄川) 중·하류 유역 일대와 가깝고, 그 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 五龍川(吾弄川)은 전장 61.5킬로미터로 두만강 하류에 유입하는 조선측 지류 중 가장 큰 하천이다. 이 하천의 특징 중 하나가 망류한다는 점이다. 大正 6年(1917년)에 日本陸地測量部가 측량하고, 大正 15年(1926년)에 발행한 『朝鮮交通圖』「慶興十三號: 古乾原」도엽<그림 10><sup>24)</sup>에서 이러한 점은 쉽게 확인된다. 경원군(새별군) 봉산리의 협곡으로부터 백동산 협곡에 이르는 하곡에 길이 약 15킬로미터, 폭 약 1.5킬로미터의 평지가 서남-동북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다. 산곡의 경사지를 흘러내려온 오룡천은 이 평지에서 운반력이 떨어지고, 다시 주변 산곡에서 흘러나온 많은 지류들이 퇴적물을 운반하며 합류되면서 오룡천은 망류한다. 이렇게 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지형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전에 이곳에 살던 여진족들은 五龍川(吾弄川)의 이 구간을 ‘갈가타이 비라(Gargatei bira: 갈가테 비라)’라고 별칭했을

것이다. 조선은 이러한 지명을 반영하여 봉수의 이름을 ‘件加退’라고 하였고, 그것이 『제승방략』, 『대동여지도』 등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서북계도』, 『지승』, 『여지도』와 달리, 그러면서도 기타의 여러 지도들<sup>25)</sup>과 마찬가지로 『청구도』에서 김정호는 ‘件加堆’로 적고 있고, 이를 하천으로 보았다. 이 지도에서 그는 산 이름을 산 모양의 그림 아래에 적고 있는데, ‘件加堆’는 산 모양의 그림 위에 적은 것으로 보아 그 옆의 하천의 이름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표시하고자 한 하천은 오늘날의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이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 이르면, ‘件加堆’는 더 이상 하천이 아니라, 그저 지명으로만 남아 있다. 하천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흙무더기가 쌓여 있다는 의미의 ‘堆’자에 집착하여, 하나의 퇴적 지형으로 본 듯하다. 대신 앞서 언급했던 ‘分東江’이라는 지명으로 ‘불하통(불가통)’이라는 하천(결국 ‘件加堆江’)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件加堆’를 ‘岿’으로 본 지도가 있다. 『여지도』(奎古4709-37) 함경도 지도<그림 11>에는 ‘件加堆岿’이라 표기되어 있다. 다른 지도들에서 하천으로 표기되었던 ‘件加堆’가 여기서는 ‘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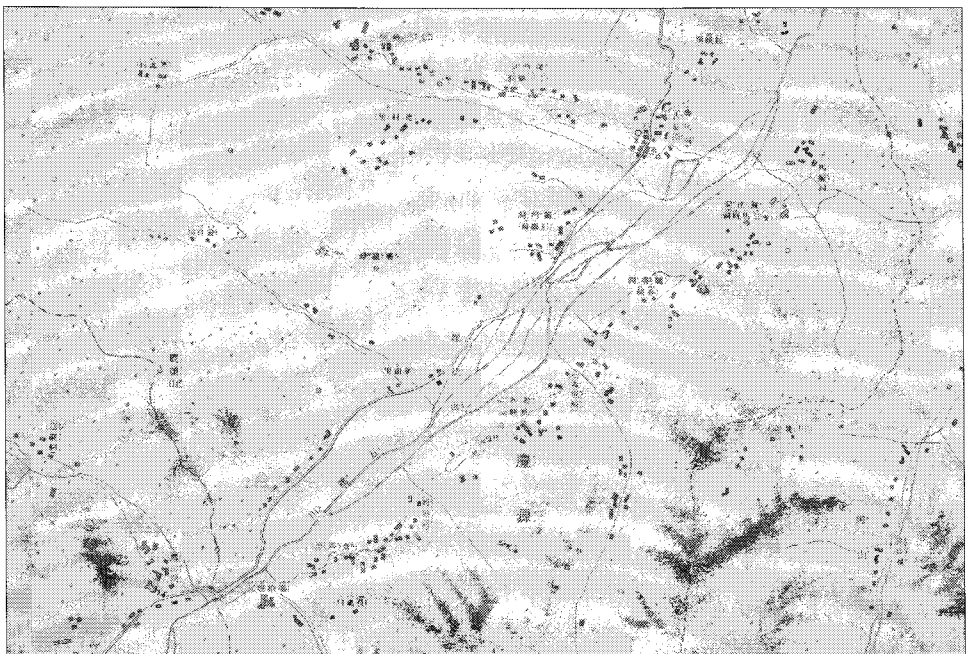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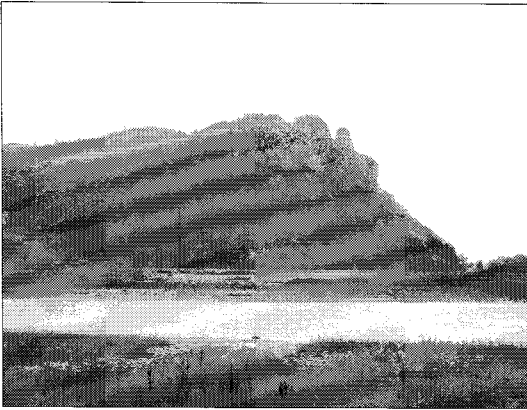


그림 10. 『朝鮮交通圖』「慶興十三號: 古乾原」(1926년) 도엽(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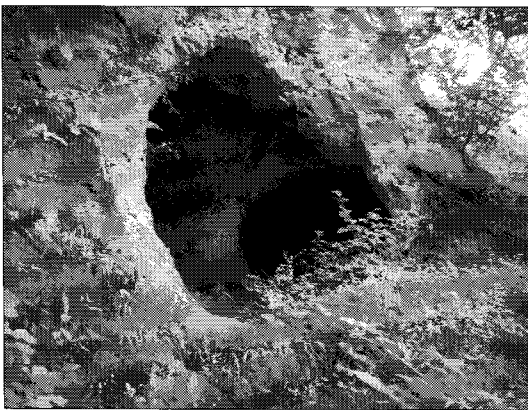


주: 『대동여지도』의 龜岩峰이다. 사진에서 두만강이 위에서 좌로 흐르다가 곡류하여 절벽 바로 밑으로 흐른다. 강 건너는 북한이다(이강원, 2007a).

그림 12. 두만강 북안 圖們市 凉水鎮 慶榮村 窟窿山(굴롱산) (2007년 8월 9일, 필자 촬영)

정하면, ‘龜岩峰’은 오늘날 중국의 圖們市 凉水鎮 慶榮村의 窟窿山(쿨롱산)이다(그림 12). 이 산을 두만강 남안의 조선 땅에서 바라보면 거북이 모양처럼 보인다고 한다. 때문에 ‘龜岩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청구도』에는 ‘仇乙山’이라는 지명만 표기된 것에 비해, 『대동여지도』에는 ‘仇乙山’과 ‘龜岩峰’이라는 두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仇乙山’과 ‘龜岩峰’은 하나의 山体이다. ‘仇乙山’은



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산에는 이러한 동굴들이 여러 개 있다. 동굴이 있다는 절벽 바로 아래 두만강이 흐르고 국경지역이어서 1개소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강원, 2007a).

그림 13. 圖們市 凉水鎮 慶榮村 窟窿山(龜岩峰)의 동굴 (2007년 8월 9일, 필자 촬영)

‘굴산’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龜岩峰’에는 실제로 동굴이 여러 개 있다(그림 13). 그래서 ‘仇岩峰’은 오늘날 ‘동굴의 산’이라는 의미의 ‘窟窿山’으로 불린다. 결국 ‘仇乙山’이 ‘龜岩峰’인 것이다.

‘龜岩峰’에 여러 개의 굴이 있고, 따라서 ‘굴산’을 뜻하는 ‘仇乙山’이라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용비어천가』 제7권 제53장에 등장하는 ‘土門투문’과 『태조실록』 총서 두 번째 기사에 나타나는 ‘豆門城’이 바로 이 일대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투문(土門)의 천호 고론보리. 土門은 지명이다. 두만강의 북쪽에 있다. 남쪽으로 경원이 60리 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 상가하(上家下)가 하루 거리 떨어져 있다. 보리는 사람 이름이다.(『용비어천가』 제7권 제53장).<sup>28)</sup>

알동(幹東: 오동)<sup>29)</sup>은 남경(南京)<sup>30)</sup> 동남쪽 90여 리(里)에 있으니, 지금의 경흥부(慶興府) 동쪽 30리에 있다. 알동(오동)의 서북쪽 1백 20여 리에 두문성(豆門城)<sup>31)</sup>이 있고, 또 그 서쪽 1백 20여 리에 알동사오리(幹東沙吾里: 오동사오리)<sup>32)</sup>가 있으니, 사오리(沙吾里)는 여진(女眞) 말로서 참(站)이다. 참(站)이 알동(오동)의 관내(管內)에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태조실록』 총서, 두 번째 기사).<sup>33)</sup>

『용비어천가』는 여진어 ‘투문’과 ‘투먼’을 각각 한자로 ‘土門’과 ‘豆漫’이라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豆門’은 여진어로 ‘투문’이 된다. 결국 음가상 ‘투문=土門=豆門’의 관계가 성립되고, 위의 인용문에 기록된里程과도 부합한다.

여진어(만주어)에서 ‘투문’은 ‘Tomon’으로 전사되며, ‘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구멍’, ‘동굴’, ‘구덩이’, ‘움푹파인 곳’, ‘맞닿은 구멍’, ‘협곡(水口, 石門)’ 등을 의미한다(자세한 것은 이강원(2007a)).<sup>34)</sup>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仇乙山’, 곧 ‘굴산’은 여진어 ‘투문(Tomon)’의 이러한 어의에 부합하는 지명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산의 이름은 중국어로 ‘굴산’이라는 의미의 ‘窟窿山(쿨롱산; 쿨롱산)’으로 불린다.<sup>35)</sup>

『대동여지도』의 ‘仇乙山’ 우측에는 ‘툽툽洞’과 ‘大洞’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우리식 한자표기로서

『大東輿地圖』白頭山·豆滿江 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地名의 검토

‘걸오동’이라 읽는다.<sup>36)</sup> 『서북계도』에는 ‘巨乙吾洞’, ‘大洞’, 『서북피아양계전도』에는 ‘巨里大洞’, 『지승』에는 ‘巨乙吳洞’, ‘大洞’, 『조선지도』(奎16030)에는 ‘鬮吾洞’과 ‘大洞’, 『청구도』에는 ‘鬮吾洞’, ‘大洞’, 『여지도』(奎古4709-68)에는 ‘巨乙吳洞’, ‘大洞’이 표시되어 있다. 모두 ‘洞’자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측에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鬮吾洞’이나 ‘巨乙吳洞’은 ‘걸오동’으로 읽히며, 여진어(만주어)의 ‘Golo’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의 물이 흐르고 있는 곳’, ‘강 줄기, 강의 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두만강 본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圖們市 慶榮村이나 凉水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大洞’은 그 어원을 알 수는 없으나, 오늘날 圖們市 凉水鎮의 두만강 부근에 北大, 南大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로 추정된다.

‘幹東’은 『대동여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 어원을 알 수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의 이정 기록에 비추어 慶興으로부터 동으로 30리 떨어진 琿春市 敬信鎮 부근으로 비정된다.

### 3. 결론

『대동여지도』의 백두산·두만강 일대에 표기된 15개의 지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定界碑·分水嶺·石堆·木柵·分界江上流’라는 지명표기와 하계망 표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동여지도』에서 김정호가 ‘土門江=豆滿江=分界江’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구도』에 나타나는 ‘토문강이 두만강이고, 분계강은 별도의 강’이라는 인식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김정호는 조·청 국경 표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계비 수립 후 나타난, 토문강·두만강·분계강이라는 세 하천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특히, ‘分界江’은 ‘경계를 나누는 강’이 아니라, ‘삼(麻; 또는 그에 어원적으로 연관되는 돼지)’이라는 의미의 여진어(만주어) ‘퐁커(Fungke)’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 하이란강(海蘭河)의 龍井市 시가지 일대 구간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따라서 『대동여지도』의 ‘分界江上流’라는 지명은 위치가 잘못 표시되었다. 나아가 石堆·木柵 역시 사실과 다르게 잘못 표시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표시를 통하여, 김정호가 백두산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과 『대동여지도』에서 그가 ‘압록강—정계비—두만강’이 조·청 국경의 지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의 지도들에 주로 ‘臙脂峰’으로 표기되고, 『청구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대동여지도』에서 ‘連枝峰’으로 표기한 것은 ‘산줄기는 이어져야 한다.’는 이 지도의 제작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分東江’이라는 지명은 필사본인 『청구도』에서도 역시 ‘分東江’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판각의 실수라기보다는 ‘分界江’으로 표기된 기존 지도들과 ‘불하통강(부얼하통강: 布爾哈通河)’이라는 현지 발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지명표기로 추정된다.

‘件加堆’는 기존의 지도들과 문헌들에 ‘件可吐江’, ‘件乙加退江’, ‘件加退江’, ‘件加堆江’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진어(만주어) ‘갈가터이 비라(Gargatei bira: 여러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강; 網流하는 강 또는 分流)’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부얼하통강의 옌지시(延吉市) 부근의 구간(龍井市 老頭溝鎮 官道村 부근의 靑龍洞에서부터 하이란강(海蘭江)이 합류하는 城子山山城 부근까지)을 별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서 김정호는 이를 하천으로 보지 않고, 대신 ‘堆’에 주목하여 하나의 흙무더기 언덕(퇴적 지형)으로 본 것 같다.

‘市火山’은 ‘布太山’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여진어(만주어)의 ‘부타이 아린(Buthai arin)(수렵·어렵인들의 산)’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서북계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지도들을 참조하여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仇乙山’은 ‘굴산’으로 ‘龜岩峰’과 같은 산이며, 오늘날 중국 圖們市 凉水鎮 慶榮村 부근의 窟窿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鬮吾洞’은 여진어(만주어) ‘골로(Golo)(강 줄기, 강의 본류)’에서 유래한 것으로 圖們市 慶榮村이나

凉水村으로 비정된다. 두만강 본류에 가장 가까이 취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大洞’은 그 어원과 어의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 圖們市 凉水鎮에 北大·南大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幹東’ 역시 그 어원과 어의는 알 수 없으나,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의 이정 기록에 비추어 慶興으로부터 동으로 30리 떨어진 琿春市 敬信鎮 부근으로 비정된다.

『대동여지도』 및 여타 고지도들의 백두산·두만강 일대에 나타나는 지명들 중 여기서 다루지 못한 지명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주

- 1) 송기중(1992; 1994)은 일련의 연구에서 ‘豆門’을 ‘豆漫투만’과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그가 ‘幹東’, ‘南京’ 및 ‘幹東沙吾里’ 등의 지명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과 일대를 제시할 뿐 정확한 위치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필자는 보다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가 조선 초기의 지명을 분석한 반면, 필자는 조선 후기의 지명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그가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의 지명 및 이정 기록에 상당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동의하며, 이 점에서 필자는 그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
- 2) 이 지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지남의 『북정록』 5월 23일, 24일, 25일 기록(김지남의 저(이상태 외 역), 1998, 129-136 참조)과 박권의 『북정일기』 5월 24일 기록에도 등장한다(김지남 외 저(이상태 외 역), 1998, 203 참조).
- 3)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清 烏喇總管穆克登 奉旨查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筆帖式 蘇爾昌 通官 二哥 朝鮮軍官 李義復 趙台相 差使官 許樑 朴道常 通官 金應憲 金慶門(대청 올라 총관 목극등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방을 조사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요 동쪽은 토문강이다. 이에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한다. 강희 51년 5월 15일 필첩식 소이창, 통관 이가, 조선군관 이의복·조태상, 차사관 허량·박도상, 통관 김응헌·김경문).
- 4) 물론 목극등은 비석이 설치된 지점이 압록강과 송화강의 분수계라는 점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 5) 『大東輿地全圖』에 대한 분석에서 오상학(2001, 199)은 ‘山自分水嶺’의 구절을 ‘산이 스스로 분수령이된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나아가 이를 ‘산경표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6) 정계비는 세워진 다음날부터 논란이 되었다. 무산에 대시하고 있던 조선측 접반사 일행은 목극등이 정한 토문강(두만강)의 원류가 大紅丹水나 石乙水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그보다 위에 있는 紅土水가 원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의 수계를 경계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홍토수가 토문강(두만강)의 원류라고 하여도 백두산 정상부와 천지는 조선의 영토가 되지 않는다(이강원, 2007b, 102).
- 7) 『制勝方略』 第一卷 列鎮防禦 鍾城鎮: 豊家上端部落, 西距二息二十里, 酋長玉孫等三十戶; 豊家洞口部落, 西距一息二十五里, 酋長鋤應鋤耳等四十戶; 豊家表洞部落, 西距二息十里, 酋長者夢介等二十五戶; 豊家上洞部落, 西距二息二十里, 酋長無, 阿羅里等五十戶; 豊家洞多伊部落, 西距二息二十五里, 酋長無, 萬等十五戶; 豊家水洞部落, 西距二息十五里, 酋長無, 安老等一十戶; 豊家吳加善部落, 西距二息十五里, 酋長無, 強加尙等三十戶.
- 8) 『制勝方略』 會寧鎮: 豊家部落, 西距二日程, 酋長鋤應巨等二十餘戶.
- 9) 申澗, 『北征錄』 5월 3日. “晴, 越豊溪件可吐兩江, 宿于件可吐江邊,” 5월 4日 “雨, 朝食于一來非羅, 宿于弓仇叱洞...”(朴泰根 譯註, 『國譯北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 61쪽, 원문 1쪽. 필자는 원문 중 ‘件’(건)을 ‘件’(오)로 본 적이 있다(이강원, 2007b, 107; 113). 이 입장을 철회하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지도들의 예에 따라 ‘件’(건)을 따르기로 한다. ‘件可吐’는 여진어(만주어)의 ‘갈가터이(Gargatei: 갈가테)’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이 논문 뒷부분의 ‘件加堆’에 대한 논의를 참조). 위 『北征錄』 국역본의 대본인 필사본(朴泰根은 自筆本 추정하였음)에는 같은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件可吐(5월 3일), 舛可退(8월 23일)의 두 지명이 나오지만, 목판본 『統輯申公實記』에는 5월 3일과 8월 23일 모두 ‘件可吐’로 기록되어 있다. 필사본(자필본 추정)에서 ‘件可吐(건가토)’(5월 3일)가 ‘舛可退(천가퇴)’(8월 23일)로 바뀐 것은, 일단 자신이 한자로 ‘件可吐’로 쓴 것을 중국어(漢語) 역관이 읽는 것을 듣고, ‘件’의 중국어 음가(jian)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비슷하게 반영하려고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글자의 혼용으로 추정된다. ‘吐’(토)와 ‘退’(퇴)는 우리식 한자음으로도 유사하지만, 중국어 발음으로도 ‘tu’와 ‘tui’로 유사하며, 여진어 음가 ‘tu’와 ‘tei’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혼용된다. 실제로 여진어(만주어)의 명사 어미에서 ‘tu’와 ‘tei’ 두 발음은 흔히 혼용된다. 申澗의 行軍 里程에 비추어도 件可吐(5월 3일)와 舛可退(8월 23일)는 같은 江이다.
- 10) 이 지도는 청에서 제작된 지도, 예로 『康熙皇輿全覽圖』, 『擁正十排圖』, 『乾隆十三排圖』 중 하나를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거기에 조선이 인식하고 있던 지명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 11) 『地乘』의 함경도 오성부 지도에 나타나는 ‘件乙加退江’에서 첫 글자를 ‘件’, ‘佯’, ‘件’ 등 어떤 글자로 판독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고지도에 나타나는 일

『大東輿地圖』白頭山·豆滿江 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地名의 검토

- 반적인 용례에 따라 '件'으로 보기로 한다. 지명 표시의 위치에 비추어 현재의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12) 『輿地圖』의 함경도 온성부 지도에 나타나는 '件乙加退江'은 지명 표시의 위치에 비추어 현재의 현재의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13) 『대동여지도』에는 '白頭山'과 '大池(天池)'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모든 지명이 조선의 경계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김정호 역시 '鴨綠江—白頭山 大澤—豆滿江'이라는 조선 초의 경계 관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호수와 산 모양을 그리고 '白頭山'과 '大池'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따라서 朝·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백두산 정상의 호수와 그로부터 정계비에 이르는 지역 일대이다. 1962년~1964년의 조·중국협정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백두산 정상의 호수와 그로부터 정계비에 이르는 지역 일대이다.
  - 14) 예로 '白頭山定界碑地圖'(奎26675; 26676, 1887년)를 들 수 있다.
  - 15)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흐르는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과 가야강(嘎呀河)은 두먼시(圖們市) 사가(下嘎)에서 합류하여 두만강으로 입수한다. 합류 이후 두만강 입수 이전의 구간을 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가야강(嘎呀河)으로 부른다. 부얼하통강보다 가야강이 더 길고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 구간이 『서북계도』에 '鴨哈里河'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하리'로 읽히며, 음가상 오늘날의 '가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16) '必拉'는 여진어 'Bira'의 음역으로 '河'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7) "홀온(忽溫)의 강성함이 다른 오랑캐들보다 심한데 소굴이 10여 일정(日程) 밖에 있기는 하지만 나오려 한다면 어찌 길이 먼 것을 꺼리겠습니까. ... 감사(監司) 서성(徐滄)이 전에 장계를 올렸습시다만, 사서(私書)에도 공격해야 하는 정상을 극력 말하였는데 번번이 건을가퇴(件乙加退)를 먼저 치자고 하였습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가? 홀호(忽胡)를 치려고 하는가?" 하니, 승훈이 아뢰기를, "건을가퇴를 먼저 치려 합니다. 종성(鍾城)은 번호(蕃胡) 아이당개(我伊唐介)가 살던 곳인데, 기해년(5359) 경에 고령(高嶺)·온성(溫城)의 호인(胡人)이 매우 번성하자 두려워하여 홀온에게 들어가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종성의 토병(土兵) 이춘(李春)이 왔을 때 신이 물었더니 '제가 아이당개를 보았는데 아이당개가 스스로 '전일에 살던 땅은 기름지므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온 뒤에는 땅이 메말라 곤궁이 극심하여 견디기 어려우므로 나오려 한다.' 하였다.' 하였습시다." (<http://sillok.history.go.kr/>).
  - 18) "...저쪽의 오국성(五國城)·여진(女眞)·걸가퇴(件乙加退)·문암(門巖) 등지도 또한 그 속에 그려져 있다.'고 하고... 더러는 경원(慶源)에 시장을 열 적에 건너편의 선성(善城)·풍성(豊城)·걸가퇴(件乙加退) 등지를 가볼 것인데, 돌아올 때에는 백두산의 터놓은 길로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른바 문암이란 종성(鍾城)에서 40리의 거리이고, 여기에서 풍계(豊溪)·걸가퇴를 지나 1백 10여 리에 갈림길이 있는데, 북쪽은 영고탑(寧固塔)으로 가는 길이고 서쪽은 심양(瀋陽)으로 가는 길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
  - 19) 반면 세조 2년과 광해군 4년의 기사는 이 지명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 20) 망류하천은 '망상류(網狀流)'라고도 부른다. 하천의 물길이 나뉘고 합치면서 그물 모양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주로 빙하에서 다량의 퇴석을 공급받는 하천, 곡구를 중심으로 토사를 집중적으로 쌓는 선상지의 하천, 퇴적작용이 활발한 하구의 삼각주에서 관찰된다. 그 외에 급경사지나 피복이 불량한 급사면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면 유로가 하나로 합쳐지지만, 물이 줄어들면 물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分流는 망류하는 하천의 개별 유로를 말한다(권혁재, 2002, 93-94).
  - 21) '一來非羅'는 여진어(만주어) '일하이 비라(Ilhai bira)'('꽃의 강'이라는 뜻)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옮긴 것이다. 오늘날 이란강(依蘭河)의 상류의 '蓮花溝'라는 하천에 '꽃'의 의미가 남아 있다.
  - 22) 朴泰根(1980, 62)은 申澗의 『北征日記』에 나오는 '件加吐'江을 오늘날의 '布爾哈通(圖)河'로 비정하면서, 洪良浩의 『耳溪外集』 권12 北塞記略에 나오는 '伐加吐里江'과 같은 강이라고 하였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이에 근거하여 '件乙加退'의 '件'을 '伐'의 誤記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
  - 23) 이 구간에서 부얼하통강의 하도가 불안정하고 쉽게 범람하여 현재 3개의 제언과 8개소의 제방(110킬로미터)을 쌓았다(崔乃夫, 2002, 6387).
  - 24) 한편, 『最近 北韓 五萬分之一 地形圖』「용북동」도엽에서는 직강공사에도 불구하고 망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아마 최근 북한의 산지개간으로 인하여 망류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 25) 여러 지도들에서 '件加堆'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朝鮮全圖』(국립중앙도서관), 『海東圖』(호암미술관) 등의 합경도첩 등이 있다.
  - 26) 『여지도』(奎古4709-37)의 '件加堆峯'은 誤記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件加堆峯'이 誤記가 아니라 실체한다면, '하천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곳' 부근에 있는 '巔'일 것이다.
  - 27) "울랑합(兀良哈) 아소(阿所) 등 6인이 울적합(兀狄哈)의 침략을 받고서 유원진(柔遠鎭) 북쪽의 장성(長城) 문밖에 있는 전지(田地)를 받아 살기를 청하였는데, 이 진(鎭)은 형세가 외롭고 약하며, 동쪽은 귀암봉(龜巖峯)이 있고, 북쪽은 압강탄(厭江灘)이 있어서 모두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
  - 28) 土門투문猛安古論李里고론보리. 土門, 地名, 在豆漫江之北, 南距慶源六十里, 西距上家下峯가하, 一日程也, 李里, 人名也. (『용비어천가』 제7권 제53장).

문헌

- 29) 오늘날 琿春市 敬信鎮 일대로 비정된다(이강원, 2007b, 48). 『대동여지도』에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경흥부 동쪽 30리에 있다.’는 기록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 30) 『太祖實錄』總序에 기록된 ‘南京’은 오늘날 琿春市 三家子滿族鄉의 斐優城, 溫特赫部古城(앞의 두 성은 붙어 있다), 八連城, 英義城 중의 하나로 비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斐優城(비우성)이 가장 유력하다. 이 성은 元 시기에 奚關總管府 관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성이 『용비어천가』에 기록된 奚關城(훤갓: 琿城)이다. 『용비어천가』에서 이 성에 대해 “동쪽으로 薰春江과 7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 豆滿투먼江과 5리 떨어져 있다.”고 한 기록이 실제와 부합한다. 譚其驤(1982, 13-14)의 지도에 이 성은 奚關總管府로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 연길시 동쪽의 城子山古城으로 추정되는 곳에 ‘南京萬戶府(南京站)’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總管이 萬戶보다 지위가 높으므로, 『용비어천가』에 기록된 奚關城, 곧 오늘날 斐優城 유적지가 ‘南京’이라고 할 수 있다. ‘南京’이 이렇게 비정되면,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에 기록된 里程 기록들이 들어맞는다.
- 31) 이 성은 오늘날 圖們市 凉水鎮 亭岩村 북쪽에 있는 亭岩山城으로 추정된다. 이 성은 龜岩峰, 곧 오늘날의 窟窿山에서 북쪽으로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遼·金代에 축성한 것으로, 둘레 2.5킬로미터의 石城이다. 다른 성곽과 달리 성벽 내측을 따라 31곳의 凹坑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凹坑 내에서 구들장, 磴道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병사들의 거주공간으로 추정된다(國家文物局, 1993, 205). 이러한 凹坑 때문에 豆門(투문: Tomon: 穴)城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 32) 오늘날 和龍市 東城鎮 普城村·興城~西城鎮 일대로 추정된다. 이 일대에 古城 유적이 다수 분포한다. 龍井 시내로부터 서쪽으로 12~2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하이란강(海蘭河) 주변이다.
- 33) 『太祖實錄』總序, 두번째 기사, “... 韓東在南京東南九十餘里, 距今慶興府東三十里. 韓東西北百二十餘里, 有豆門城, 又其西百二十餘里, 有韓東沙吾里. 沙吾里, 女真言站也. 站在韓東管內, 故云然.”
- 34) 때문에 여러 곳에서 ‘투문(Tomon)’이라는 지명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乾隆十三排圖』의 백두산·두만강·부얼하통강(布爾哈通河) 일대에는 여러 곳에 ‘土門’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며, 『서북제도』에도 이란강(依蘭河)으로 추정되는 하천에 ‘土門江’이 표기되어 있다.
- 35) 따라서 『용비어천가』의 ‘土門투문’은 仇乙山·龜岩峰(窟窿山)으로, 『태조실록』의 豆門城은 亭岩山城으로 비정할 수 있다.
- 36) 『제승방략』 열진방어 永建堡 항목의 故事에 ‘巨乙只大洞’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적이 온성진에 이르러 ‘巨乙只大洞’에 살고 있던 백성을 살해하고 소를 노략질하여 두만강을 건너갔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巨乙只大洞’은 두만강 내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康熙皇輿全覽圖, 中國 外門出版社 影印本(2007).  
 乾隆十三排圖, 中國 外門出版社 影印本(2007).  
 大東輿地圖, 匡祐堂 북간본(1985).  
 白頭山定界碑圖, 奎26675; 26676.  
 北關地圖, 奎古4709-16.  
 北征錄, 申澗(朴泰根 譯註, 國譯北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  
 西北界圖, 奎古4709-89.  
 西北彼我兩界全圖, 海東地圖 第4帖(奎古大4709-41 -v.4)  
 旅庵全書, 申景濬, 景仁文化社 影印本(1979).  
 輿地圖, 奎古4709-37.  
 輿地圖, 奎古4709-68.  
 研經齋全集, 成海應,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2001).  
 擁正十排圖, 中國 外門出版社 影印本(2007).  
 龍飛御天歌, 亞細亞文化社 影印本(1972).  
 壬辰穆胡克澄定界時所模, 輿地圖(奎古4709-1) 수록.  
 制勝方略, 金宗瑞,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9).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朝鮮地圖, 奎16030.  
 地乘, 奎15423.  
 靑邱圖, 奎古4709-21.  
 八道地圖, 奎10331.  
 강석화, 1996, 白頭山 定界碑와 間島, 한국사연구 96, 121-134.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서울.  
 강석화, 2007, 19세기 북방 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1-26.  
 권혁재, 2002, 지형학(제4판), 법문사, 서울.  
 김기혁, 2007, 우리나라 고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3), 301-320.  
 김기혁, 2008,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부산.  
 김동소, 1977, 『용비어천가』의 여진어휘 연구, 국어교육연구 9, 91-106.  
 김주원, 2006,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야인(여진족)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16, 1-33.  
 김주원·이동은, 200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 여진어 만주통구스어, 알타이학보 14, 43-64.
- 김지남(의 저)/이상태(의 역),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서울.
- 명지대학교, 1997, 最近 北韓 五萬分之一 地形圖, 경인문화사, 서울.
- 배우성, 2007,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 수계, 역사와 경계 65, 27-62.
- 송기중, 1988, 『태조실록』에 등장하는 몽고어명과 여진어명(I), 진단학보 66, 131-149.
- 송기중, 1990,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북방 민족어명, 진단학보 69, 103-124.
- 송기중, 1992, 『태조실록』에 등장하는 몽고어명과 여진어명(II), 진단학보 73, 121-138.
- 송기중, 1994, 조선조 건국을 후원한 세력의 지역적 기반, 진단학보 78, 85-123.
- 신영길 역, 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 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서울(篠田治策, 1938, 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 양보경, 2004, 해제: 동양식 전통지도의 집대성이자 금자탑-『대동여지도』와 고산자 김정호, 대동여지도, 월간 산 6월호 부록, 조선일보사, 서울.
- 오상학,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미,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27-100.
- 오상학, 2010, 목판본 『대동여지전도』의 특징과 가치, 대한지리학회지 45(1), 184-200.
- 유충걸·심혜숙, 1993, 백두산과 연변조선족: 지리학적연구, 백산출판사, 서울.
- 이강원, 2007a,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두만강·토문강·분계강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0(3), 91-118.
- 이강원, 2007b, 조선 초 기록 중 ‘두만’ 및 ‘토문’의 개념과 국경인식, 문화역사지리 19(2), 45-57.
- 이강원, 2010, 백두산·천지 지명에 대한 일고찰: 한·중 지명표기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2), 129-141.
- 이기문, 1973, 18세기 만주어 방언자료, 진단학보 36, 100-132.
- 이기봉, 2005, 『청구도』와 『동여도』의 지명 위치 비정에 대한 일고찰: 충청도의 해미현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7(1), 84-102.
- 이기봉, 200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여』와 『청구도』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3), 254-268.
- 이상태, 1991,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사상, 지리학 26(2), 139-144.
- 이상태, 1996, 백두산정계비 설치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7, 87-119.
- 이선근, 1962, 백두산과 간도문제-회상되는 우리강역의 역사적 수난-, 역사학보 17·18, 547-570.
- 장상훈, 2007, 박물관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933, 滿洲十萬分一圖.
- 羽田亨, 1937, 滿和辭典, 京都帝國大學滿蒙調査會, 京都.
- 陸地測量部, 1926, 朝鮮交通圖.
- 參謀本部 陸地測量部 臨時測圖部, 1907, 朝鮮滿洲十萬分一圖.
- 國家文物局 主編, 1993, 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北京.
- 吉林省地圖開發應用中心 編制, 2002, 延邊朝鮮族自治州行政區劃圖(1/30萬).
-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編印, 1974, 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
- 譚其驤, 1982, 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北京.
- 史爲樂 主編, 2005, 中國歷史地名大辭典 上·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 延邊朝鮮族自治州民政局 編制, 1991, 延邊朝鮮族自治州行政區劃圖(1/30萬).
- 牛汝辰, 1995, 中國水名詞典, 哈爾濱地圖出版社, 哈爾濱.
- 劉建封, 出版時期不明(1912~1949), 長白山江志略, (中華民國) 財政部印刷局印, 北京.
- 劉厚生·關克笑·沈 微·牛建強, 1988, 簡明滿漢辭典, 河南大學出版社, 開封.
- 中國測繪史編輯委員會, 2002, 中國測繪史 第2卷, 測繪出版社, 北京.
- 崔乃夫 主編, 2002, 中華人民共和國地名大詞典, 商務印書館, 北京.

(접수: 2010.6.29, 수정: 2010.7.30, 채택: 2010.9.6)